

# 정읍시 새암로 간판 정비 '산뜻해진다'

###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5억 들여 130여 업소 간판 교체

정읍의 구도심이 새 간판을 달고 도심 속 걷기 좋은 길로 거듭난다.

정읍시는 새암로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과 거리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가 간판을 업소별 특성에 맞게 제작·교체될 예정이다 밝혔다.

대상 구간은 새암로 연지아트홀에서 옛 제일은행까지 650m 구간이다.

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간판 개선사업' 국가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투입해 새암로 구간 130여 업소의 간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7월 중 실시계획을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시민 창안 300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새암로 지역의 보행 위함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엠프와 스피커를 설치해 새암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기능과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패션의 거리를 조성했다.



간판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정읍 새암로 구도심.

<정읍시 제공>

시는 이에 더해 무질서한 간판의 높낮이를 맞추고 거리의 특색과 업소별 특성을 간판에서 서체와 색채로 담아 아름다우면서도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간판으로 꾸며 원도심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자문위원 컨설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와 건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으로 디자인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은 물론 건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순창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 '도깨비...' 시사회

### 2주간 영화캠프서 제작

영화나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던 '청소년 영화캠프'의 네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순창군에 따르면 '제4기 우리영화만들자 청소년 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역 작은영화관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시사회가 열렸다.

시사회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청소년과 가족 등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진행됐다.

소개된 단편영화 '도깨비가 산다'는 순창지역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12명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단편영화로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의 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졌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도깨비와 가상 세계의 스토리로 풀어낸 영화는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청소년 영화캠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협조 강사진과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영상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했다.

시나리오, 조영, 녹음, 연출, 편집 등 각 분야 전문감독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와 제작까지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수행했다.



순창군 '청소년 영화캠프'를 통해 단편영화를 제작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영화캠프를 지도한 여균동 감독은 "영화 제작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능하게 해준 순창군을 비롯해 제작, 진행, 맛있는 간식 등으로 다양한 도움을 준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까지 하면서 제작한 영화인데 아무런 사고 없이 멋진 영화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단편영화 '도깨비가 산다'는 추후 각종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다.

제3기 우리영화만들자작품인 '용만아 어디가'는 '제15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동상에 해당하는 동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남원시, 5월4일부터 5일간 광한루원서 춘향제

남원시의 대표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춘향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춘향제는 '다시, 사랑'이란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5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춘향제는 광한루원 원월정 무대, 예춘 마당과 요전의 무대에서 춘향제향과 함께 전국춘향선발 대회가 개최된다.

5일 어린이날에는 원월정 무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6일부터 7일까지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 '삼도 농악한마당', '서예 퍼포먼스', '스트리트 춘향·몽룡파이터' 등의 공연이 마련되고 7일에는 국내 최고의 국악 행사인 춘향 국악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춘향제 기간 동안 요전 무대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경남원향우회가 주관하는 '시민 어울마당'이 열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로 신명나게 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

이 외에도 요전 일대에는 춘향제 기간 '월매주막'이라는 쉼터가 만들어져 남원시 배달 플랫폼인 '월매요'를 통한 스마트 배달을 통해 각종 간식거리를 먹으며 주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시민화합 한마당과 함께 제92회 춘향제 폐막식이 진행된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춘향제는 그 모습이 변해왔을지언정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대한민국 대표 문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군 가축 5만6000여두 구제역 일제접종

고창군이 구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주간 관내 소·돼지·염소 923호, 5만596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특히 소 50두, 염소 8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접

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익산시, 수의계약 한도

### 2배 상향...지역업체 보호

### 대금 지급 기한도 줄여

익산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월까지 운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기간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적용한다.

또 검사·검수, 대가 지급기한을 대폭 줄여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인 공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등록된 익산 지역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우선 계약하도록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 상권과 업체를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군산시, 개야·신시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 두리도·장자도 이어 추가 설치

군산시가 일명 '바다의 쓰레기통'으로 불리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사진)을 추가로 설치한다.

군산시는 오는 6월말에 옥도면 개야도와 신시도 해역 2곳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집하장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폐어망과 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쌓아 놓는 곳으로 가로 15m, 세로 7.6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이다. 선상집하장은 쓰레기를 육지 보관장소까지 가져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다에 보관하도록 해 악취발생 감소효과가 있다.

시는 고군산군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9

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두리도와 장자도 해역에 각각 1곳씩 설치했다.

시는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조업 중인 양쓰레기 수매사업과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해 1900여건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2650t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양쓰레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군산 앞바다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